



낙농산업의 구조 변화와 대책

건국대학교축산대학
교수 정찬길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그 생산 및 소비면에서 인구증가, 국민총생산증가, 가격수준상승, 일인당소득향상, 다국적 경제, 대기업의 비대와 다수화 등과함께 모든축산물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입불안정과 소비둔화,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자유화분위기 조성 등에 따라 유관관계품의 수입급증은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같은 작금의 낙농산업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낙농산업의 구조조정과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의 구조적 변화, 우유의 생산과 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유의 유통과 가격구조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육농가와 사육규모구조의 변화

1980년 불황을 맞게된 우리나라 낙농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에 걸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1년부터 1989년 사이에 사육농가호수는 22,122호에서 36,040호로 1.6배가 증가한 반면 사육두수는 194,205두에서 515,178두로 2.7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호당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한편 년평균 증가율을 보면 사육농가는 5.3%인 반면 사육두수는 13.3%로 사육두수의 성장율이 훨씬 높다, 특히 사육농가의 성장율은 1985년부터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육규모별 농가호수는 9두 미만의 사육농가가 1980년 72.3%에서 1989년 44%로 감소하였고, 10두부터 49두까지의 사육규모는 26.1%에서 45.9%로 증가하였으며 50두이상 규모는 1.6%에서 1.9%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중 대규모의 사육농가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입증하고 있다.

사육규모별 년도별 사육농가수의 증가율을 보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에 걸쳐 년평균 증가율이 7-9두는 7.9%, 10-14두 11.5%, 15-19두 17.6%, 20-29두 18.2%, 30-39두가 11.8%, 40-49두 11.7%로 15-19두와 20-29두 규모의 사육농가가 가장 높은 년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육규모별 농가호수의 증·감은 규모별 자생력을 반영하여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낙농경영은 15-19두규모나 20-29두 규모에서 규모의 유리성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들 규모를 중심으로 경영규모의 조정이 시계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젖소의 사육규모별 두수 및 농가분포를 보면 1981년에는 10두미만의 사육농가가 72.3%로 전체사육두수의 35.0%의 젖소를, 10두이상 49두이하 사육농

가가 27.1%로 55.3%의 젓소를, 50두이상 규모는 1.6%의 사육농가가 전체사육두수의 15.4%의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1989년에는 10두미만의 사육농가가 44.0%로 전체사육두수의 17.3%의 젓소를, 10두이상 49두이하의 사육농가가 45.9%로 전체사육두수의 75.3%의 젓소를, 50두이상의 사육농가가 7.4%로 전체사육두수의 36.8%를 사육하고 있어 10두미만의 규모에서는 사육농가와 두수의 점유비율이 감소하고 10두이상 49두미만규모와 50두이상규모에서는 사육농가에 비하여 사육두수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경과에 따라 사육농가와 사육두수의 점유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다.

3. 우유의 생산과 소비구조의 변화

1980년 이후 우유의 생산량을 보면 412천톤에서 1988년에는 1,625천톤으로 3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유총생산량을 2년이상 암소를 기준으로 두당착유량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3,617kg에서 5,805kg으로 증가율은 60%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유의 절대생산의 증가율은 높은 반면 두당 착유량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농가단계에서 우유생산 기술의 저위와 생산효율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유생산량을 우유소비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인구증가와 1인당 GNP와 비교하여 보면 같은 기간에 인구는 38,124천명에서 41,975천명으로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1인당GNP는 968천원에서 2,952천원으로 200%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우유생산량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 따라서 우유의 소비요인들의 절대적 성장에 의한 소비증가도 중요하지만 기준요인들의 소비창출에 의한 소비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한 우유의 수급불안정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우유생산과 소비를 보면 1980년 이후 우유의 년평균 생산증가율은 17.5%이고 소비의 년평균 생산증가율은 19.7%로 큰차이가 없으나 국내대체가 가능한 관련제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수요를 직간접

으로 장식하여 수급불안정을 가속하고 있다. 대체가 가능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수입량을 보면 1982년에 3,687톤, 1983년 5,401톤, 1984년 5,033톤, 1985년 2,432톤, 1986년에 297톤 등으로 국내총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있어 3월말 현재 국내분유의 재고량은 2만여톤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제과업체들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코코아분말은 분유의 함유량이 약 80%로 국내분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코코아분말의 수입량은 1987년에 826톤, 1988년 1797톤, 1989년에는 2,750톤으로 급증하여 낙농산업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다.

4. 우유의 유통과 가격체계

가. 원유의 유통

유제품의 질과 신선도는 원유의 질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원유유통의 효율성은 지극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원유유통의 체계화는 유제품생산비의 직접적 절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오래동안 거론되어 왔던 집유일원화의 도입이 집우주체와 배유주체 그리고 우유처리 가공주체간의 이해관계론 때문에 거시적 생산성향상이라는 지상명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관리권분담이라는 참여문제로 가장 효율적 집유모형의 채택과 그 조기정착이 매우 회의적인 실정이었다.

특히 현행 다단계 다원화되어 있는 원유의 유통과 수송수단으로 아직도 통집유차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집유우송, 위생과 검사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원유의 계량과 유지방 검사는 집유업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계량검사의 공영화의 조속실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음용유유통

우리나라의 유제품소비구조는 음용유가 우유총소비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음용유의 유통구조는 보급소를 통한 가정배달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슈퍼 백화점등을 통한 고정판매도 빠른 속도로 신장되고 있으나 배달원에 의한 방문판매가 전혀 필요없고 소형용기에 의한 판매가 불합리한 아파트단지에서의 음용유유통구조는 가장 비효율적 유통허상이다.

음통유의 대부분이 보급소를 통한 배달원이 가정 배달함으로써 유통비용이 매우 높는데 만일 슈퍼를 통한 대량용기화되어 있는 우유 직접 구입체제가 정착되 못착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는 약25%의 높은 유통마진을 부담하고 있다.

음용유의 처리와 판매집중도가 아직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조제분유,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에 비하면 상위 4개업체의 집중도는 낮은 편이지만 아직도 약50%의 집중도를 시현하고 있다.

음용유의 판매가 도매기구나 대형소매점에 의한 거리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보급소를 통한 배달원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직간접개입이나 협의 혹은 담합에 의한 균일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향상과 씨비스레공등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어 소비자는 공급자로 부터 편익향유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다. 유가격체제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제도는 원유생산비조사에 근거하여 1kg당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유량과 유지방울에 따라 일정율을 가감하는 지극히 단순한 가격체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등 낙농선진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유성분 및 위생유질차등가격제도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생산구조와 원유유통체제로 불배선직국형의 섬세한 가격체제의 도입은 원생산기술이나 집유체제가 선진국수준까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5. 구조 조정을 통한 대응방안

낙농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안정적 발전을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기술과 대응기술혁신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효율적인 조사료생산기술과 능력이 우수한 젖소의 선발 번식 개량과 사양합리화를 통한 우유의 산유능력향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생산비절감을 꾸준히 실현시켜 경쟁력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화되고 복잡한 경제체제하에서는 경영능력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따라서 효율적이며 실질적 경영지도체제를 확립하여 낙농가의 경영지도가 실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투입요소의 절감방안이 꾸준히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낙농경영규모의 경제성을 '이룩하기 위한 규모확대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나 노동력의 부족으로 제약이 많다. 따라서 가족경영단위로서 가장 효율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이들 개별경영단위가 생산단지를 형성하여 생산과 판매면에서 규모의 경제성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영모델의 개발과 도입이 절실하다. 이와같이해서 낙농의 수평적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생산자자체적으로, 협동조직을 통하여 기존가공기업과 제휴하여 수직적 통합체제를 형성하여 생산, 가공판매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산업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유의 소비면에서는 자연적 소비증가보다는 적극적 소비개발이 중요하다. 국민식생활패턴이 우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서구에서 처럼 결코 주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소비홍보활동보다는 소비홍보효과와 철저한 계량적 비계량적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홍보매체의 개발이나 종합적 홍보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원유의 유통개선과 유질향상을 위하여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의 조기정착이 시급하다 이미 결론이 이루어진 집유일원화문제는 집유독점, 또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가공처리업체등 직접 개입등으로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유아기적 단계에서는 이해집단과 무관한 제3차적 기구이어야 하고 특히 정책지원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을 지녀야하고 기능의 정착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음용유의 유통은 아파트등 슈퍼나 대형소매기구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는 직접유통체제를 확립함을 물론 우유용기의 대형화되어야 한다.

원유의 가격구조에 있어서 유성분 및 위생유질차등가격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므로 낙농가의 우유취급위생상태제고, 집유일원화와 수송의 콜드체인화, 원유의 계량과 검사의 공영화 등 그 기반조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원유의 계절별 가격차등제도의 도입은 현시점에서 시도되어

야 한다. 우유의 수급은 계절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과잉생산기일 7-9월과 12-2월 그리고 부족되는 3-6월과 9-11월의 기간을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기준가격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이 차등가격은 연중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집유일원화와 동시에 집유지의 평균적 개념을 탈피하고 개별낙농가의 수송거리, 납유량 밀집도등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낙농산업의 구조조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농가의 단지화, 경영의 씨스텀화, 원유예측생산제도입, 생산량할당및 계약생산제의 도입, 사육두수조절, 생산요소의 저렴화등의 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